

투데이 칼럼

### 전북이 민주당의 주머니 속 공깃돌인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입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전북도지사 선거 구도와 공천권 문제를 전략적 카드로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전북을 자신들의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며 중앙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주고받을 수 있는 점유물로 취급하는 오만함에 도민들은 깊은 모멸감과 함께 반드시 주권 행사 시 포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공유된 합당 관련 전략 문서에는 향후 지방선거를 대비한 권역별 시나리오와 함께 '전북도지사 구상', '여권 단일화 효과 극대화'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담겼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비록 인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지역의 광역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 간의 합당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물자각한 처사다.

이는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를 부정하고, 도민의 신성한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

이러한 '공천권 배분설'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분노를 표출했다.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논란을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자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 역시 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북은 중앙 정치의 필요에 따라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도지사 공천권은 그 어떤 정치적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러한 시각을 '오만한 인식'으로 규정하며, 전북을 단순히 '표밭'이나 '정치적 화수분'으로 여기는 구조를 깨지 않는다면 전북 발전은 한낱 말 잔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도지사 선거는 도민의 의견이 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밀실에서 정치적 거래로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내용이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북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며 도민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전북 시민사회의 반응도 냉혹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사안을 "도민의 주권과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했다. 양당 간에 지역 권력 배분이 밀실에서 거래되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혁신당과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북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민들의 지지를 당연시해 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중앙 정치의 재편을 위해 지역의 자치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전북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 문제 등 지역 내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도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이번 '공천 거래설 의혹'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다. 도지사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 선출되는 자리이지, 중앙당 지도부의 '구상'에 따라 배치되는 장기관의 말이나 출이 아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문건 사태에 대해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전북도민은 더 이상 중앙 정치의 실험대 거리의 도구가 되기를 철저히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전북의 도약을 비한다면, 도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부터 버려야 할 것이고 전북도민을 존중하려는 태도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전북도민은 전북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북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덧붙여서 민주당은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고, 전북도민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만 더불어민주당도 존중받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사설

#### 다주택자들의 눈치 싸움

주택 문제로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연일 나오면서, 현장에선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는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 매매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서울 송파구의 어느 아파트에선 최근 일주일 사이 집을 내놓겠다는 요청이 20% 정도 늘었다.

하지만 서울 지역에 따라 매물 증가율은 가지각색이고 통상적인 변동 폭을 벗어나는 흐름도 아직은 잡히지 않는다. 숨죽인 눈치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는 종과세 때문에 매물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다. 지금 내놓을까 말까를 결정하고 고심하고 있다.

처분하려고 나선 다주택자 중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에선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제로 거주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 세입자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을 팔기 위해 중도 해지 위로금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웃돈을 주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소 500만원이나 1,000만원 주고,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2,000만원 달라면 2,000만원이라도 주고서 팔겠다고 한다.

최근 전세 매물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들도 선택 웃돈을 받고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파트 등 서울에 있는 주택은 모두 317만 채, 이중 다주택자 소유는 최소 91만 채 이상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시장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주간 거래 동향 등의 통계로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 노인자원봉사자 건강증진 위한 숲 체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가 2026년 녹색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 증진 및 지속적인 노인자원 봉사활동 재충전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숲 덕분에 다시 청춘' 숲 체험·교육사업 제공에 본격 나섰다. 2월 3일에는 숲쟁이 협동조합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숲 덕분에 다시 청춘 프로그램은 산림청, 북권기금위원회,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숲쟁이 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숲쟁이 협동조합은 상관 편백 숲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도시공원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 2월부터 10월까지 1,623명의 노인자원 봉사자에게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숲 덕분에 다시 청춘' 산림 치유 프

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기후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공예 활동도 진행한다.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김두봉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노인자원 봉사자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삶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숲 체험·교육 사업을 제공해 주는 숲쟁이 협동조합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완주 상관 편백 숲은 치유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에는 아름드리 편백 수만 그루가 있다. 입장료와 주차료가 폐지되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완주군은 관광객을 위해 편백 숲 진입도로 15킬로미터를 확포장하고 소하천 공사를 마무리했다. 등산로와 안내판도 정비해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꾸었다.

사내·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기자수첩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이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는 출마선언을 하는 자리가 있었다.

최근 군산 지역에서 다시금 불거진 '포시시 쫓겨내기' 논란이 지역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뒤얽힌 이 구태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번 사건은 군산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군산은 전북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한때는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으로 번창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여러 산업들의 침체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의 '포시시 쫓겨내기'가 발생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해관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쫓겨내기 정치' 라는 구태 또다시?

'또다시 쫓겨내기'란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선거철에 더욱 두드러지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비효율적인 정책이나 혜택을 남발하여 표를 얻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군산에 거주하는 A씨(42)는 "정치인들이 선거만 다가오면 나타나서 약속을 남발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실제로 군산에서는 최근 몇 차례의 공공 사업이 지역 정치인들의 입김 아래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여름에 추진된 '군산시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은 특정 업체와 연계된 정치인의 관계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B씨의원은 "정치적 이익



김만호

지방부  
군산주재

을 위한 쫓겨나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

반면,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 관계는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이러한 변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군산에 거주하는 C씨(55)는 "정치인은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군산 지역구에서의 포시시 쫓겨나기란 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주민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의 달콤한 약속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이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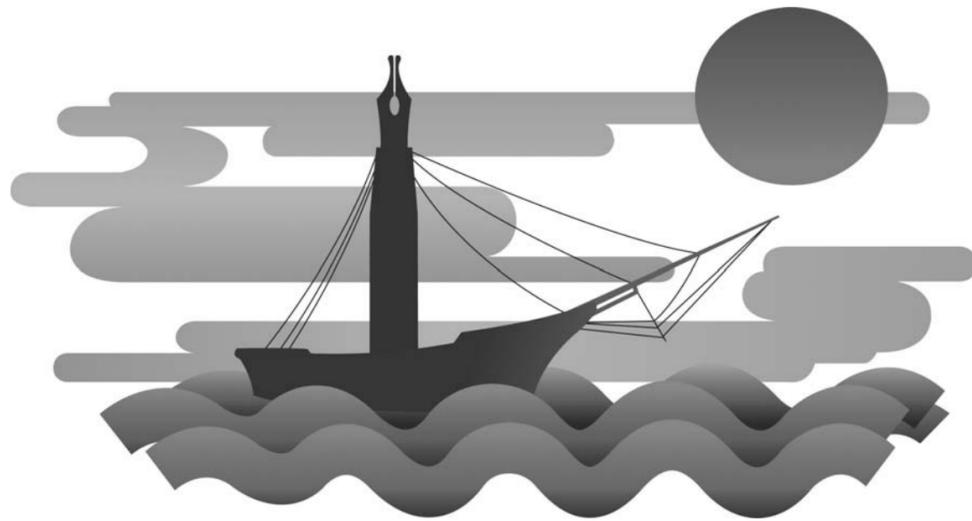
이처럼 군산 지역구의 포시시 쫓겨나기란 구태는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다. 정치인들은 이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구태에 머물 것인지. 이 선택이 군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에 될 것이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